

# 정상회담 1차 선발대 오늘 방북

### 대통령 전용차도...속소·회담장·참관지 등 확정할 듯

다음달 2~4일 열리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선발대 방북에 노무현 대통령 전용차량도 동행한다.

1차 선발대 단장인 이관세 통일부 차관은 18일 방북에 앞서 17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내일 선발대 방북에 대통령 전용차량과 운전요원 1명도 포함된다"면서 "정상회담 때 예상되는 동선을 직접 운행해 도로의 안전상태 등을 미리 점검하고 운전요원이 행사장 지형도 숙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전용차량의 사전 답사가 필요하다는 우리측 요구를 북측이 흔쾌히 받아들였다"면서 "전용차량은 1차 선발대가 귀환하는 21일 함께 내려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은 지난달 14일 준비접촉에서 노대통령이 전용차량을 타고 경호차량과 함께 평양~개성 간 고속도로를

통해 방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북은 이후 추가협의를 거쳐 장관급 각료와 청와대 보좌진으로 짜여진 공식수행단과 기업인을 비롯한 민간인 47명으로 구성된 특별수행단도 우리측 차량을 이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이 차관은 말했다.

기자단과 일반수행원도 역시 우리측 차량을 이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8~21일 방북하는 1차 선발대는 의전, 경호, 통신, 보도 분야의 실무관계자 35명으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해온 내용을 토대로 현장 답사를 거쳐 ▲세부 체류일정 ▲숙소 ▲회담장 ▲참관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발대는 18일 오전 7시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출발,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북하며 북측 구간에서는 북측



제2차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1차 선발대가 18일 방북할 예정인 가운데 17일 오후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선발대 전체 모임에서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인사말을 마친 뒤 이관세 통일부 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차량을 이용한다.

선발대 속소는 고려호텔로 정해졌다. 백화원초대소가 속소였던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와 달랐던 데 대해 이 차관은 "선발대 활동에는 아무런 지

장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연휴 뒤인 27일 운영원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2차 선발대를 파견, 미진한 부분을 최종 조율한다. /연합뉴스

# 평양선언 5주년...북·일 관계 앞날은?

### 교착상태 지속...日 온건파 정권 등장시 진전 기대

일본과 북한 양국간 국교정상화 협상 재개와 수교 후 일본의 경제협력 등을 담은 평양선언이 발표된지 17일로 만 5주년을 맞았다.

지난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평양을 전격 방문, 김 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무척 높았다.

그러나 일본인 납치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으로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후퇴한 채 진전이 없다. 2004

년 5월의 고이즈미 총리의 재방북과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협의가 간헐적으로 있었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북한은 납치 피해자 5명과 가족들을 일본으로 돌려보낸 뒤 납치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행방 불명된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과 진상규명, 가담자 처벌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국교정상화는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고이즈미 전 총리의 2002년 첫 방북시 김 국방위원장이 일본인 납

치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했다. 평양 선언 채택 등으로 관계 개선의 기운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은 그해 10월 납치 피해자 5명의 고국 방문을 허락했다. 북한이 이미 사방했다고 밝혔던 8명 가운데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도 일본 측에 보냈다. 그것으로 납치문제는 해결됐다는 게 북한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은 요코다의 유골이 DNA 감정 결과 가짜라며 이의를 제기, 북한측을 분노케 한데 이어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납치 피해자 17명 가운데 남은 12명에 대한 조사 및 송환을 요구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16일 푸켓 공항에서 태국 저가 항공사 원투고 소속 MD-82 여객기가 추락한 뒤 수색작업에 나선 구조대원들이 동체 잔해를 살펴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 또...동남아 저가항공 '주의보'

### 16일 태국 푸켓서 착륙중 지면과 충돌 88명 사망

### 한국인은 탑승 안해...안전 관리 미흡 사고 빈발

태국 푸켓 공항에서 발생한 원투고(One-Two-Go) 항공사의 여객기 충돌 사고를 계기로 동남아 저가 항공사의 안전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근년 들어 항공 수요가 급증하자 동남아에서 저가 항공사가 우후죽순 격으로 설립되면서 이들 항공사 소속 여객기의 대형참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태국의 저가 항공사인 원투고 항공 소속 MD-82 여객기가 승객과 승무원 130명을 태우고 방콕의 돈므앙공항을 이륙, 16일 오후 3

시40분께 푸켓 공항에 착륙하려다 지면과 충돌, 기체가 두 동강나면서 화재가 발생해 88명이 숨지고 42명이 부상했다.

사고 여객기에는 외국인 관광객 등 승객과 승무원 130명이 타고 있었다.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은 탑승자 명단을 입수해 조사해본 결과 현재까지 한국인 탑승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25일에는 캄보디아의 저가항공사인 PMT항공 소속 AN-24기가 한국인 13명 등 승객과 승무원 22명을 태우고 캄보디



아 시엠리아프 공항을 떠나 시아누크빌로 향하던 도중 악천후 속에서 정글로 추락해 탑승자 전원 이 사망했다. 저가 항공사는 외형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질 있는 항공요원과 기술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방콕=연합뉴스

# “北-시리아 ‘핵 커넥션’ 근거 없다”

### 송민순 외교 “평화체제협상 연내 개시될 수도”

송민순 외교교통상부 장관은 17일 “9월말 유엔총회 방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시 시점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최근 언론에 잇달아 보도된 북한의 대 시리아 핵물질 이전 의혹에 대해 “그 문제는 현재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만한 상태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과의 외교안보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평화체제 협상개시 시점은 북핵문제의 불능화가 촉진될 경우 연내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금강산 상설 면회소 추진과 이산가족의 상시적인 상봉 시스템 마련 등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깊이있게 논의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신당에서 김효석 원내대표와 김진표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장수 국방부 장관, 송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재정 장관은 김 원내대표가 NLL 문제와 관련해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한 단호한 입장 피력과 서해안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을 요청한 데 대해 “국민이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추진하고 서해상 어민권의 보호, 우발적 충돌 저지 등 종합적 차원에서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금강산 상설 면회소 추진과 이산가족의 상시적인 상봉 시스템 마련 등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깊이있게 논의될 것이다”고 밝혔다.

폭스뉴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최근 북한이 시리아에 핵물질 또는 핵 장비 등을 이전한 의혹이 있다고 잇달아 보도했다. /연합뉴스

# “6자회담 순연은 중유 미제공 때문”

19일부터 열릴 것으로 알려졌던 북핵 6자회담 일정이 순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제공하기로 한 중유 5만톤의 수송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북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중국은 한국에 이어 중유 5만톤의 수송을 8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수송 작업이 끝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북한이 ‘약속 이행’을 이유로 19~21일 6자회담 개최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도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한 나라가 중국이 제시한 개최일정(19~21일)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시간적으로 볼 때 19일 개

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유 수송이 회담 지연의 이유라면 며칠 사이에 마무리되는 뒤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남북정상회담 이전에는 개최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평양-베이징 항공편을 감안할 때 이번 주말(21일)이나 내주 초반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국제약품 '기린'과 '기린'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대한 '소매치기' 범은 '좋은 약'을 '사랑'입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복통약이었고,  
머리 아플 때는 두통약이고 해열제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랑으로 낮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깃든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큐텐지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비타민 A, C, E의 보충  
- 유해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여 노화 방지  
- 눈의 건조감과 안구 피로 완화  
- 피부 미용과 피부 노화 방지, 피부 탄력 증진  
- 뇌세포 활성화 및 기억력 증진, 수면 개선, 수축성 근육 이완  
- 아연의 보충

대한 **국제약품**  
www.kukje.com

고객센터: 080-022-2200